

# 박근혜의 위기를 이용해, 화물연대·철도노조와 함께 싸우자 7차 쟁대위는 전면 파업 결정하라

10월 10일 화물연대가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이어가는 시점에서 물류 운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은 박근혜 정부를 더욱 코너로 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기아차지부가 파업에 나선다면 임금 공격 등 각종 개악시도에 제동을 걸고 통상임금을 쟁취할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박근혜 정부의 위기를 이용해 싸워 볼 만한 상황이다. 우병우 사태,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모금, 최순실 게이트 등 눈 뜨고 일어나면 새로운 권력형 비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박근혜의 지지율은 역대 최악인 29퍼센트로 추락했다.

### 똥줄이 탄

특히 지배자들은 경제 위기 심화로 곤혹스런 처지다. 최근 독일의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가 위험에 빠지는 등 세계경제가 악화하면서 한국 경제도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9월 말 공공 파업이 벌어지고 현대차지부가 하루 전면 파업과 주야 6시간 파업으로 수위를 높이자, 정부는 똥줄이 타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수조 원의 생산 차질과 수출 축소로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이럴 때 박유기 집행부가 파업을 일시 중단하고 정상조업을 한 것은 유감이다. 박근혜 정부의 긴급조정권 협박은 그들의 강력함이 아니라, 위기감의 발로였는데 말이다. 현대차 조합원들은 갑작스런 파업 중단에 불만을 터뜨렸다. 11일 현대차지부 쟁대위는 파업 재개를 결정해야 한다.

현대차의 현장서클 '민주현장'은 최근 "생산 타격만으로 재벌을 압박하겠다는 것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정치 투쟁, 재벌 투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업의 무기를 내려놓아서는 흔들리는 박근혜를 더한층 궁지로 몰아넣을 기회만 유실할 것이다.

기아차지부 김성락 집행부는 지난주



파업에 나선 화물 노동자들

에 '현대차에 긴급조정권에 발동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주 2회 2시간, 4시간 파업으로 투쟁 수위를 낮췄다. 이조차도 파업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대의원 교섭위원들의 반발에 밀려 결정된 것이었다고 한다.

### 대담하게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이 수 차례 주장했듯이, 이런 소심한 파업 회피로는 실질적인 양보를 얻을 수 없다. 정상조업과 '끈질긴 현대차 해바라기'로 인해 현장 조합원들의 불신과 회의만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간파한 사측은 의도적인 도발을 하며 교섭을 파행으로 끌고 가고 있다.

지금은 현대차지부 뒤에 숨어 숨 고르기만 할 때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심각한 위기를 이용해, 화물연대·철도 노동자들과 함께 과감하고 대담하게 싸울 때다.

곧 있을 7차 쟁대위는 파업 강도를 높이고 전면 파업을 결정해야 한다. 김성락 집행부는 더 이상 투쟁을 회피하며 조합원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김을 빼서는 안 된다.

지각하면 징계? 지각·조퇴·외출에 성과급 차별?

## 미르·K재단에 111억 상납한 정몽구나 징계하라

사측은 본교섭 17차, 실무교섭 9차 동안 평정 한 푼 제시하지 않으며 똥배짱을 부려 왔다. 그런데 최근 그것도 모자라 9월 급여의 '파업 공제' 항목에서 통상수당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을 일괄 삭감했다. 이로 인해 조합원 일인당 십수만 원의 임금을 강탈 당했다.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은 적용하지 않으면서 통상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더구나 사측 교섭팀장은 10월 4일 9차 실무교섭에서 "지각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지각, 조퇴, 외출 등은 성과급에 차등 반영해야 한다"는 도발적인 발언을 했다. 이에 노측 대의원 교섭위원들이 강력히 반발해 결국 교섭은 파행으로 끝났다.

그런데도 사측은 적반하장으로 '노측 교섭 위원들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17차 본교섭을 하지 않겠다'며 교섭을 거부했다.

사측은 10월 10일 급여 명세표에 지각과 조퇴의 표기 방법을 횡수로 일방 변경하며 이후 징계 의도를 분명히 하기까지 했다. 노동조합의 항의로 급여 명세표가 조합원들에게 반출되지 않았지만, 이는 단협을 파기하는 심각한 수준의 도발이다.

단협을 개무시하며 막 나가자는 사측에 본패를 보여 줘야 한다. 정작 징계되고 퇴출돼야 할 당사자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박근혜에게 아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1백11억 원을 미르·K스포츠 재단에 투척한 정몽구와 정의선이다.

# 신입사원 임금 차별 철폐하라

신입사원들은 호봉(2011년 이후 입사자)과 심야보전수당(2013년 이후 입사자)을 차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사내하청에 근무하다 입사한 조합원들은 근속년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해 기존 사원들과 임금 차별을 받고 있다. 같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는데 조금 늦게 입사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차별 받는 것은 부당하다. 지금 신입사원들에 대한 임금차별을 방지한다면 고참들에게 가해지는 임금피크제 공격을 막기가 더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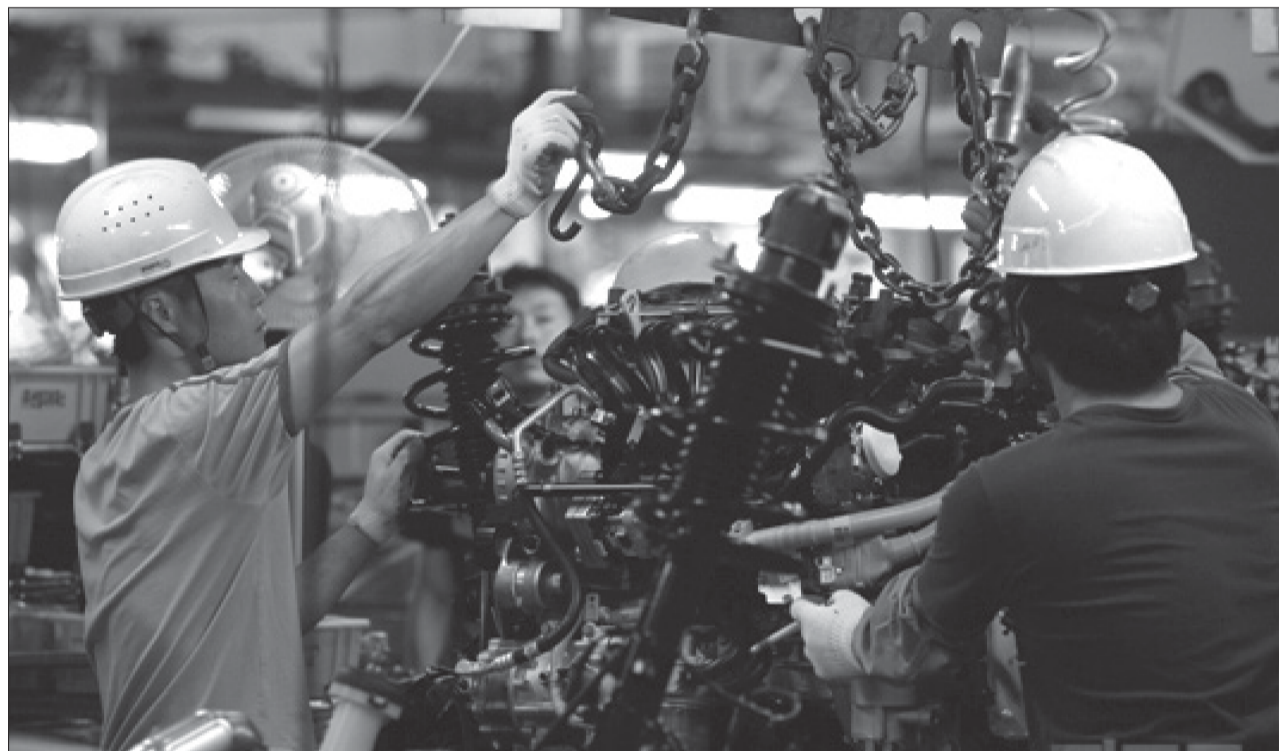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부당한 차별에 맞서 신입사원을 중심으로 이중임금제 철폐 대책위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대책위의 활동으로 심야보전수당, 호봉 개선 문제가 임금교섭 요구안에 상정됐고, 사내하청 근속인정 문제는 특별교섭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2015년에 이어 사측은 이중임금제를 더욱 확대할 특별 호봉승급을 또 다시 시도할 것이 명백해 보인다.

현대차에서 부결된 1차 잠정합의안도 특별 호봉승급이 포함됐다.

그런데 김성락 집행부는 특별 호봉승급을 비판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측의 의도를 막아내고 김성락 집행부가 투쟁에 나서게 만들기 위해서는 신입사원 대책위를 비롯해 활동가·조합원들이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신입사원들이 대책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고참 조합원들이 대책위를 지지해 함께 투쟁해야 한다.



# 통상임금 지급하라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된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을 했다.

물론 두 가지 황당한 사족을 달았다. 첫째: 현대차지부를 겨냥해 15일 이하 근무자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둘째: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민법을 도용해, 기업이 위기라면 3년치 체불임금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제약한 것이다. 이런 황당한 판결은 법리가 아니라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준 꼴이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기아차는 두 가지 제약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첫째: 단체협약에 15일 미만 근무자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측이 지급하지 않을 명분은 전혀 없다. 둘째: 2011년에 소송을 시작한 3년치 체불임금을 사측이 지급한다고 도산할 가능성 역시 없다. 천문학적인 순이익을 내고 있고 사내유보금으로 1백12조 원이나 쌓여 있으니 말이다.

체불임금은 뒤로 하고라도, 2013년 12월 18일 이후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는

법적 다툼의 대상이 아니다. 기아차가 지금 법적으로 다루는 것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가 아니라 2013년 12월 18일 이전 체불임금의 규모를 얼마까지 인정할 것인지이다.

“통상임금 전문가”를 자처한 김성락 집행부는 이런 점을 모르지 않는 데도, 올해 임단투에서 통상임금 요구를 관철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월 50~60만 원에 이르는 임금을 언제까지 떼어야 한단 말인가! 김성락 집행부는 통상임금 해결을 위해서라도 '현대차 해바라기'를 중단하고 전면 파업에 나서야 한다.

## 화성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

# 여성 노동자 처우개선 위한 운동을 건설하자

기아차 화성공장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처우로 고통 받고 있다. 식당에서 일하는 2백여 여성 노동자들은 하루 빨리 인원 총원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배식 코스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노동강도가 강화됐지만, 인원 총원은커녕 정년퇴사자 자리도 채워지지 않고 있다.

PDI 공장에도 여성 노동자들이 많다. 이 곳은 한여름엔 더위와, 한겨울엔 추위와 전쟁을 한다. 더구나 화장실 대소변기가 고작 3개밖에 없기에, 여성 노동자들이 서명을 받고 대자보를 부착하고 항의하자, 사측은 고작 1개를 추가로 늘렸을 뿐이다.

외곽 청소 노동자들은 공장 전역을 돌며 담배꽂이를 줍고 청소를 한다. 이들에겐 잠시나마 쉴 수 있는 휴게실은 꿈 같다. 2004년에 청소 중에 차량에 치어 한 노동자가 숨지고 한 노동자가 크게 부상을 당했다. 요즘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지만, 사측은 쉬쉬하고 넘어가곤 한다.

라인 곳곳에도 2~3명씩 짝을 지어 일하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샤워장은 고사하고, 휴게실과 화장실도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사무실의 일반직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현장직 비정규직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다.

여성 노동자들은 때로 성적 차별과 모욕을 겪기도 한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주변에 힘이 있어 보이는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노골적인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9월 27일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의경부대 식당 여성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실사를 폭로했는데, 이 곳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화장실 중 한 칸을 쓰거나 먼 거리에 있는 화장실까지 가서 이용을 해야만 했다. 이런 현실은 기아차 화성공장 너무나 흡사하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나서야 한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처럼 열악한 조건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많을수록, 남성 노동자들도, 정규직 노동자들도 노동조건 하락의 압박을 받기가 쉽다. 노동조합이, 여성과 남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단결해서 여성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운동을 건설해 나가자.



노동자 정치 신문

<http://wspaper.org>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 연대** 를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 연대〉를  
함께 읽고 토론합시다

〈노동자 연대〉는 곳곳의 주요 노동자 투쟁 소식과 운동의 전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동자 연대〉를 읽고 토론할 동지들을 기다립니다. 연락주십시오.

문의 : 김우용 (010-3092-9003)